

한강 작가의 소망, ‘책 읽는 동구’ 사업 주목

1만 4000여명에게 책 지원
노벨문학상 작품 전시...인문 정보
지역 책방 활성화 등 사업 주목
6년 성과... 동구의 도시브랜드로

광주 동구가 민선 7·8기 출범 이후 ‘인문도시’를 지향하며 추진 중인 ‘책 읽는 동구’ 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인문학을 널리 알린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 출신인 한강 작가가 “책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사는 광주”를 소망하면서, 이미 광주 동구가 2018년 7월 인문도시정책과를 신설한 이후 지난 6년여간 일방적인 관(官) 주도 사업이 아닌 주민들이 참여, 책과 연관된 콘텐츠를 매개로 ‘생활 속 인문’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동구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빛을 발하고 있다.

● 1만 4000여 명 주민에게 책 지원... 독서문화 확산

올해로 5년째 접어든 ‘책 읽는 동구’ 사업은 다양한 독서공동체가 주체가 돼 함께 읽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범구민 독서운동이다. 구는 2020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을 위해 인문도시 조성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토대로 한 ‘책 읽는 동구’ 사업은 △올해의 책 및 구민권장도서 선정 △지역 책방 연계 동구민 권장도서 지원 및 구민 독서 운동 △찾아가는 독서교실 운영 및 독서활동가 양성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독서문화 행사 등이 대표적이다.

동구는 ‘올해의 책’과 ‘구민 권장 도서’ 선정을 위해 매년 초 교육청과 도서관 관계자 등 전문가로 도서 선정단을 꾸리고 주민들이 추천한 도서 중 후보 도서를 압축, 구민 온라인 투표와 최종 심의를 거쳐 ‘올해의 책’ 10권을 최종 선정하고 있다. 유아·어린이·청소년·성인 4개 부문별로 선정된 ‘올해의 책’과 구민 권장 도서 80권은 구와 협약을 맺은 광우서점 등 관내 10개 지역 책방(독립서점)에서 도서 신청 후 독서공모전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만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난 4년(2021~2024)간 매년 4000여 권씩 1만4000여 명에게 도서를 지원, 책으로부터 개인과 공동체 위기의 해법과 지혜를 얻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10일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이후 “책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사는 광주”를 언급한 만큼, 그동안 꾸준히 ‘책 읽는 동구’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 동구의 남다른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 찾아가는 독서교실·지역 책방 활성화 등 주목

동구는 단순한 도서 지원사업을 넘어 이를 독서공모전, 찾아가는 독서교실, 지역 책방 활성화 프로그램과 연계·운영한다는 점 또한 주목할만 하다. 주민들이 올해의 책과 구민 권장 도서를 신청, 읽고 나서 감상문을 제출하는 독서공모전의 경우 부문별(청소년·성인·가족·단체) 출판작과 동구민 참여도가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독서공모전 참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초기만 해도 280여 명에 불과했으나 올해 950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주민참여형 독서문화교육 일환으로 하는 ‘찾아가는 독서교실’은 유치원은 물론 초·중·고등학생으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4년(2021~2024)간 학교와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동화구연·낭독·글쓰기 등)을 380회 진행해 6000여 명이 참여했다. 주민들의 인문 활동을 지원하는 40여 개의 인문(독서) 동아리 회원들은 1년간 매달 모임을 통해 책을 읽고, 독후감을 공유하는 인문 공동체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관내 운영 중인 10여 개소의 지역 책방 활성화를 위한 ‘책마을 인문산책’은 전국적으로 폐업이 줄을 잇고 있는 독립서점 살리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동명 책방, 이것은 서점이 아니다, 책과 생활, 기억 책방, 문학서점, 소년의 서 등에서 각 책방의 특색을 담은 북 토크와 낭독회, 인문 강연 등을 5년간 76회 진행했다. 대형서점이 아닌 지역 책방에서 쉽게 만나기 어려운 소설가·시인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점에서 적극적인 주민 참여율을 이끌어냈다.

● 지난 6년 성과 결실...도시브랜드 탄생

그동안 추진해 온 대표적인 인문사업 중 책 읽는 동구 이외에도 인문 자산 기억하고 기록하기, 미래 세대를 위한 ‘동구 인문대학’ 운영, ‘어르신 자서전 쓰기’, ‘인문 골든벨’, ‘인문 글로벌 지도자 양성’ 등이 있다. 이를 계기로 2022년 전국 규모의 순회 행사로 치러진 ‘한국지역도

서전’ 6번째 개최 도시로 선정됐고, 주민들의 인문 배움터이자 문화 향유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동구 인문학당’이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을 받는 쾌거를 거둔 바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6월 1~2일 무등산 중심사 지구 일원에서 ‘제2회 동구 무등산 인문 축제’에는 3만여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기도 했다. 이러한 지난 6년간의 괄목할 만한 인문사업 성과들이 커 커이 쌓여 모든 전국의 타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행보로 광주 동구만의 도시브랜드인 ‘인문도시 광주 동구’가 탄생했다.

● 책정원서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작품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어느 때보다 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구 구립도서관 책정원에서 2000년 이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25명의 작품을 오는 28일부터 연말까지 전시한다. 1층 북 큐레이션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에서는 우리가 모르고 있던 노벨문학상에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거리도 함께 만날 수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10만7000여 명의 동구민과 함께 축하드린다”면서 “지난 6년간 주민들과 함께 ‘인문도시 광주 동구’를 조성하기 위해 공들여 온 만큼, 작가님이 희망하는 ‘책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사는 광주’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 특강
북구 일곡도서관, 선착순 접수



광주 북구가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사진) 교수를 초청해 특별한 강의를 연다. 20일 북구에 따르면 인문주간(10월 28일~

11월 3일)을 맞아 오는 11월 2일 오후 2시 일곡도서관에서 권일용 교수의 ‘인문학 북콘서트’가 개최된다.

지역 주민들의 인문학 소양과 활동의 욕을 증진하고자 마련된 이번 강연에서는 ‘범죄자의 마음으로 들어가라’를 주제로 다양한 범죄 유형·범죄자 심리,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또 강연에 앞서서는 영화 OST, 클래식, 대중가요 등을 연주하는 ‘쿠아라앙상블’의 피아노 5중주 메들리 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북콘서트 수강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북구통합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도서관과에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인문학 감성을 확산하고 안전한 일상을 도모하고자 준비한 이번 북콘서트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마련하고 공공도서관을 내실 있게 운영해 주민 누구나 쉽게 인문 교양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광주 서구는 지난 10일 세계 눈의 날 기념식에서 저소득층 실명 예방과 눈 건강증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서구, 실명예방사업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저소득층 안과 수술비 지원 1위

광주 서구가 최근 저소득층 실명 예방과 눈 건강증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서구는 저소득층 노인인 대한 무료검진, 안과질환 수술비 지원, 재활사업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저소득층 노인 안과 질환 수술비 지원 연계 건수가 현재까지 총 967건으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세계 눈의 날(매년 10월 두 번째 목요일)

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눈 건강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지정한 날로 보건복지부는 매년 눈의 날을 맞아 눈 건강을 위해 우수한 활동을 펼친 우수기관·유공자를 심사해 선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실명예방재단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제54회 눈의 날 기념식에서 서구는 방문보건서비스 연계 저소득층 실명예방사업에서 높은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최근 노인성 안질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눈 건강에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눈 건강 증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건강한 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눈 수술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백내장, 녹내장, 사시 등 안과적 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한 주민은 보건소나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수술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상기 기자

‘남구 PT 스마트 프로그램’ 운영
남구, AI 활용 맞춤 처방

광주 남구는 인공지능 및 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한 ‘남구 PT 스마트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다이어트와 근력 강화, 체중 감량, 자세 교정 등 운동 목적에 따라 PT 및 애플리케이션 운동 정보가 제공된다.

또 혈액검사부터 생활 습관, 심전도, 가족력, 혈압, 영양, 복약까지 사전 질환 정보를 기반으로 체력과 심폐, 관절 움직임 검사까지 진행한 뒤 맞춤형 건강관리 처방도 받을 수 있다.

남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번 프로그램은 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062-607-4495)에 사전 전화 접수를 한 뒤 구청 5층 운동처방실에서 PT를 활용한 신체검사를 받은 뒤 이용할 수 있다.

신체검사는 최첨단 기능을 갖춘 하드웨어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된다.

43인치 대형 스크린에서 자세 검사와 체력 검사 등을 위한 여러 동작을 제시하며, 인공지능을 탑재한 하드웨어는 참가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면서 운동처방을 제공한다.

PT 검사를 마친 주민은 스마트폰에 리얼피티 앱을 설치하면 자기 주도적 실천 계획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인공지능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남구 PT 스마트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가장 똑똑한 트레이너와 함께 쉽고 정확하게 자기 몸을 관리할 수 있다”며 “비용도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이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지난 8일 구청 정문 앞에서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장려 차원에서 남구 PT 스마트 운동처방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윤준명 기자

징검다리하우스 4호점 계약 체결
광산구, 개소 이후 32세대 지원

광주 광산구가 지난 17일 광주도시공사와 위기가구 임시거주공간인 징검다리하우스 4호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재난, 실직 등의 사유로 급하게 거주 공간이 필요한 위기 가구에 단기기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징검다리하우스는 지난 2018년 개소 이후 현재까지 32세대를 지원했으며, 신흥동, 송정동, 신가동에서 운영하고 있다. 4호점은 비아동에 운영될 예정이다.

광산구는 화재 피해, 강제퇴거 등 갑작스레 거주지를 상실한 위기가구를 보호하고,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공간을 제공한다.

박병구 광산구청장은 “타 기관과 협업을 통해 주민들이 더 나은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광산만의 특별한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징검다리하우스의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민관 및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해 확대 강화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통합돌봄과 주거의료급여팀(062-960-391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철 기자